

수영 김서영, 코카콜라 체육대상 MVP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주자인 김서영이 제24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고의 별로 우뚝 섰다.

김서영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 24회 코카콜라 체육대상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김서영은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08초34로 터치패드를 찍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이 종목 금메달을 가져온 것은 1982년 뉴델리 대회 최윤희 이후 36년 만이다.

김서영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상을 받아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는 시점에 큰 상을 주셔서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며 "아프지 않고 잘 준비해 내년 도쿄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콜라하면 코카콜라가 떠오르는 것처럼 수영하면 수영선수 김서영이 떠오르도록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1982년 최윤희 이후 AG 개인혼영 금메달

오연지·이대훈·이도연 '우수선수' 수상

말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2018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김서영은 올해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입상을 노린다. 사상 최초로 국내(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인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김서영은 "여자 수영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메달을 딴 경우가 없다. 올 7월 메달권 도전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수선수상(비장애인부문)은 슈타포른 시스다(태국)를 4-1 판정승으로 제압, 한국 여자복식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된 진정환 걸크리시 오연지와 남자 태권도 88kg급 금메달리스트로 태권도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3연패 대업을 달성한 이대훈이 받았다.

장애인부문 우수선수상은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러게임 핸드사이클 2

관왕을 달성한 '철의 여인' 이도연의 몫이다. 우수단체상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15개의 메달(금 6, 은 3, 동 6)을 휩쓸며 3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한 세계 최강 배달제조기 펜싱대표팀이 수상했다. 신인상 남자 부문은 지난해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에서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결승 진출자가 된 탁구 천재 조대성이 가져갔다. 여자 부문에서는 '월드 도미의 신' 여흥철 교수의 딸이자, 아시안게임 여자 기예체조 우승자인 여서정이 선정됐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남자축구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끈 '학범슨' 김학범 U-23 청소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우수지도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은 아시안게임 카누(용선) 종목에 출전, 남북단일팀 사상

처음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는 것만큼 즐길 수 있듯이 무료 온라인 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멤버십 회원들에게 드래곤즈의 모든 경기에 대한 Preview와 Review를 제공하여 보다 흥미롭게 경기를 즐기도록 할 계획이며 경기장을 방문한 회원에게는 경기평가와 경품추첨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이 멤버십 제도가 팬과 구단의 가장 중요한 생방향 소통채

최초로 국제 종합스포츠대회 우승을 일궈내며 남북 화합의 상징이 된 여자 카누대표팀과 지난해 11월 급성백혈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한국 사이클계의 영원한 별로 남은 고 이민혜가 수상했다. 동생을 대신해 시상자로 나선 이민혜의 언니 이혜진씨는 "민혜를 기억해주고 이름을 남겨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신 상은 민혜 옆에 잘 두겠다. 비록 하늘로 레이스를 떠났지만 꽃길 깔아주시고 배웅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1995년 제정된 코카콜라 체육대상은 한국 코카콜라가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아마추어 스포츠분야에서 역량 있는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 코카콜라가 주최하고 스포츠조선이 제정한다.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선수의 훈련 과정, 성적, 주위 평가 등을 고려해 연간 MVP를 선정 수상한다. 또한 매해 전 종목을 망라해 가장 발군의 업적을 보인 선수들을 선정, 연간 시상식을 개최한다.

1회 황영조(마라톤), 전이경(쇼트트랙), 유승민(탁구), 김연아(피겨스케이팅), 장미란(역도), 이상화(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 박태환(수영), 양학산(체조), 윤성빈(스켈레톤) 등 영광의 얼굴들이 코카콜라 체육대상을 받았다.

한국 코카콜라 이창엽 대표이사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코카콜라 체육대상이 전 세계에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스포츠 영웅들과 유망주들이 한데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에 짜릿한 도전과 승리의 감동을 전해준 아마추어 스포츠가 한국 스포츠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지원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강정호, 작심하고 한풀이

4년만의 시범경기서 연타석 홈런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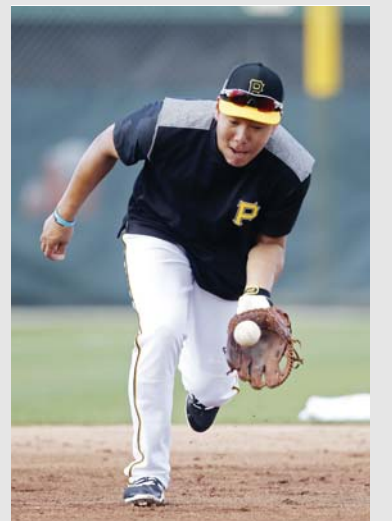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4년 만의 시범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폭발시켰다. 강정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의 레플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시범경기에 3루수 겸 5번타자로 선발출장 2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첫 경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터뜨렸다.

1-0으로 앞선 2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 홈런을 친 강정호는 4회 KIA 타이거즈 출신의 험터 노에시를 상대로 솔로 홈런포를 작렬했다.

3루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뽐내며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여파로 2017시즌을 통째로 쉬 후 2018년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다가 부상으로 고개를 떨궜다. 수술과 재활을 거친 강정호는 지난해 막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가 2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브레이튼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무대에 올랐다. 강정호는 지난해 11월 피츠버그와 최대 550만달러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 300만달러에 보너스 250만달러를 받는 1년 계약이다.



양희영, 태국서 또 웃다

혼다 LPGA 타이일랜드 우승... 통산 4승

양희영(30·피엔에스)이 태국에서 또 한 번 웃었다.

양희영은 24일 태국 춘부리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울드 코스(파 72·657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이일랜드 4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적어낸 양희영은 호주 교포 이민지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리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양희영은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우승 기록을 추가했다. LPGA 통산 4승째다.

4승 중 3승이 이 대회에서 나왔다. 2013년 3월 처음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더니 2년 전에도 당시 코스 레코드를 22언더파 266타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양희영은 올해 우승으로 이 대회에서 3승을 챙긴 최초의 선수가 됐다. LPGA 4승 중 3승을 태국에서 거뒀다.

이민지는 1타차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장 승부를 뒀으나 18번홀에서 시도한 회심의 이글 퍼트가 홀컵 바로 앞에서 멈춰 고개를 숙였다.

신지은(27)이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4위를 차지했고, 지은희(33·이상 한화)가 1타 뒤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본격적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 박성현(26·솔레이)은 최종합계 7언더파 28타로 공동 21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멤버십 가입하고 경기도 보고 할인도 받자"

전남드래곤즈 2019 멤버십 회원 모집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정명)는 티켓링크를 통해 2019년 전남드래곤즈 홈 경기관람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 회원을 모집한다

전남드래곤즈는 재창단이라는 각오로 2019년 Restart 하며, 팬들이 드래곤즈 경기를 보다 재미있게 즐기도록 돕고 영원한 팬심을 얻고자 드래곤즈 멤버십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는 것만큼 즐길 수 있듯이 무료 온라인 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멤버십 회원들에게 드래곤즈의 모든 경기에 대한 Preview와 Review를 제공하여 보다 흥미롭게 경기를 즐기도록 할 계획이며 경기장을 방문한 회원에게는 경기평가와 경품추첨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이 멤버십 제도가 팬과 구단의 가장 중요한 생방향 소통채

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멤버십은 연간회비와 혜택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유료 멤버와 베이직인 온라인 무료 멤버로 나뉘어진다. 모든 유료 멤버들은 회원카드와 함께 입장권과 모든 MD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드래곤즈는 2019 멤버십 회원을 오는 3월 30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자연산 돌레길
Natural Stone Trail

■ 실이 있는
지리산 돌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돌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산천, 창세마을, 회연사, 선전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